

2023년 [하계] 해외어학연수 설문지

학과: 한국어문학과

이름: 김연선

2023년 해외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작성해 주시면 차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학연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②취업을 위해서 ③목적없이 참가 ④기타(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2. 어학연수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익특별반, 토익사관학교 등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예 ②아니오

3. 이번 해외 어학연수 과정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 ①아주 많이 ●많이 ③보통 ④안함

전체 반응도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기타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연수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떤점이...
연수국가	○					
교육 프로그램	○					
주말 프로그램	○					
강사진			○			
기숙사	○					
강의실			○			
식사			○			
편의시설		○				
기타()						

교육생 의견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p>[좋았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프로그램이 짜여져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p>[나빴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편 시간이 전반적으로 나빴습니다.- 학교 수업의 내용이 언어보다는 문화 목적이었으며 대부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어 전반적으로 피로했습니다. (전날 11시까지 농구 관람후 다음날 아침 일찍 집합하는 등) <p>[이것만은 꼭 개선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들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는 반 편성이 필요합니다.
-------------------	--

*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소감문>

	이름: 김연선 학과: 한국어문학과	학번: 202115032
소감문	<p>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외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하게 되어 언어적인 어려움과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대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과 외로움도 느껴졌다. </p> <p>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영어로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서는 조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적응해가며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이아가라 컬리지의 선생님들은 다들 친절하셨고 학생들의 학습에 진심을 다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다.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발표 형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셨다. 나 또한 처음에는 긴장하며 발표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을 가지며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p> <p> 또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 비치데이, 원더랜드, 농구 관람, 토론토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알차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캐나다의 관광지들은 나를 놀라게 했다. </p> <p> 캐나다에서의 홈스테이 생활은 캐나다의 일상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친절하고 따뜻한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호스트 가족 중 한명이었던 제나는 식사를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쉬는 날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놀러가기도 했다. 또한 매일 나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냐며 물어봐주었고 저녁시간에는 영어로 그들과 의사소통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경험은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p> <p>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는 한달이 매우 긴 시간일 줄 알았지만, 한달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캐나다를 떠나기 마지막 날에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나와 홈스테이 가족들이 울기도 했다. 한달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듯한 경험이었다. 이번 어학연수를 기회로 앞으로 영어 실력 증진 시키고 싶다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p>	